

## 대학생 창업에 대한 제언

이상경\*

대구보건대학교 금융회계학과

## Suggestions on the Business Start-up of College students

Sang-Kyung Lee\*

Department of finance & Accounting, Dae-gu Health College

**요약** 이 연구는 청년창업에 도움을 제안한다. 청년창업이 우리사회에 건실하게 정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방안이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첫째, 소상공인을 활용한 멘토그룹핑 창업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 우수한 소상공인의 장인정신을 계승하고, 더 나아가 발전된 창업을 설계할 수 있는 창업교실 운영이 필요하다. 둘째, 이를 교육하고 지원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법정 장려수당을 청년창업 예산에 반영하여 지급함으로써 소상공인 장인의 가계안정을 가져다주고 창업교실 운영자에게 자긍심과 사명감을 고취 시켜야 한다. 다음으로 청년창업 지원제도는 원스톱 서비스 형태로 지원되어야 한다. 창업지원 기관이 여러 개의 기관으로 운영이 되어서 창업 프로세스가 너무 복잡하고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으므로 그 절차를 아주 간결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창업지원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창업분야를 다양화 할 수 있게 지원하고 창업 주체가 튼튼하게 성장이 될 수 있도록 정보와 시장기능 역할을 하여야 한다.

**Abstract** The study is to suggest ways to help the youth start up a business. To help the youth settle their business down steadily in our society, the following should be considered: First, small business entrepreneurs can be mentors for the venture business education. The outstanding entrepreneurship should be succeeded and running the venture business class for the successful start-up is needed. Second, the legal funding for small business entrepreneurs who contribute to the education of the student business start-up should be paid off, so that they take a pride in themselves as well as the funding can be a compensation for their time and effort. Third, the support system of student business start-ups should work in a form of one-stop service. Since the current support system is too complicated and is not easy to access, the simple procedure to apply and get support is needed. Finally, a control tower for the support of student business start-ups is needed. The tower should play a role in providing information and labor market function to help the start-up businesses grow successfully.

**Key Words** Entrepreneurship Support system, start-up, youth start-up, Start-up Procedure

### 1. 서론

최근 장기적인 경기 침체와 일자리 양극화 현상 등으로 인한 청년실업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N포 세대', '열정페이' '헬조선' 등 청년 취업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내는 신조어들이 등장하고 있으며, 취업 여부가 대학 졸업식의 풍경까지 바꾸고 있다. 지난 5월 11일 통계

청이 발표한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4월 청년 실업률(15세~29세)은 10.9%로 역대 4월 청년 실업률 중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 25~29세 실업률도 전년 동월대비 약 0.5%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16). 또한 대졸 학력 이상 실업자는 2012년부터 4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지난해 대졸 이상의 실업률은 3.6%로 2002년(3.7%) 이후 13년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다(매일경제, 2016.02.29.일자)[1]. 통계청

\*Corresponding Author : Sang-Kyung Lee(Dae-gu Health College)

Tel: +82-10-2008-4073 email: leesk@dhc.ac.kr

Received December 8, 2016

Revised December 15, 2016

Accepted December 20, 2016

2016년 10월 고용동향 발표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청년(15세이상 29세이하)실업률이 2015년 10월의 고용동향과 비교했을 때보다 실업률이 1.1% 증가한 실업자 수가 약 5만명 이상이 증가되었다. 이와 같이 청년실업이 계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청년층의 국외취업 증가와 자포자기의 상태로 우울한 청년기를 보내고 있는 청년실업자가 우리사회를 어둡게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요인은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대다수이지만 오랜기간 지속되고 있는 내수시장 침체로 인하여 기업의 수익구조가 날로 악화되면서 우리의 수출전선에 빨간 불이 켜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지금의 경제상황을 조금이나마 최소화하기 위하여 기업들은 자구적 구조조정 등으로 위기를 극복하고자하며 그 영향이 노동시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다. 통계청이 2016년 11월 9일 발표한 ‘2016년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657만7000명으로 1년 전보다 27만8000명 늘었다. 전체 취업자 증가 폭은 2, 3년 전만 해도 30만~50만 명 선을 유지했지만 올해 들어 20만 명대로 굳어지는 모습이다. 산업별로 봤을 때는 제조업 취업자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11만 5000명 감소하며 7년 1개월 만에 가장 큰 감소 폭을 나타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경기가 추락했던 2009년 9월(11만8000명 감소) 이후 최대치다. 통계청은 “전반적인 경기 위축으로 기업들의 신규 고용이 줄어든 가운데 조성과 해운, 철강 등 업종에서 기업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서 실직자들이 늘어났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각종 실업 관련 지표도 악화됐다. 특히 청년실업률은 8.5%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1%포인트 상승했다. 10월 기준으로는 1999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17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전체 실업률은 3.4%로 1년 전에 비해 0.3%포인트 오르며 10월 기준으로 2005년(3.6%) 이후 가장 높았다. 20대와 30대를 중심으로 실업자가 8만4000명가량 증가해 10월 실업자는 총 92만3000명에 달했다. 향후 전망도 그다지 밝지 않다. 조선·해운업 구조조

정이 본격화되면서 그 여파가 지역 협력업체에 본격적으로 옮겨가고 있어서다. 따라서 ‘수출 부진→생산 감소→고용 축소’의 악순환이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크다[2]. 이와 같이 청년실업이 증가하면서 해외로 취업처를 찾아나서는 청년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대다수의 청년들이 취업에 대한 장벽을 실감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청년창업에 열중하고 있는 현실이다. 2016년 3월말 기준으로 중소기업청 및 대학 알리미의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그 현황을 살펴보면 청년 창업에 대한 관심정도를 짐작할 수 있다. 전국 200여개 대학에서 6,000여개의 창업동아리가 등록되어 있고, 그 회원수 만 5만 여명에 이르고 있으며, 2015년 4월부터 2016년 3월까지 대학생이 설립한 창업기업이 750여개 업체로 등록되어 있어서 창업에 대한 관심도를 데이터로 확인해 볼 수 있다. 그러면 이러한 청년창업이 그들의 일자리를 대체해 줄 수 있는 방안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되기에는 아직도 부족한 부분들이 여기저기에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청년창업에 대한 관심이 청년 창업으로 이어져 청년실업을 해소하고, 우리사회에 올바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창업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본 논문은 대학을 졸업하고 일자리를 얻지 못해 실업자로 전락하고 있는 우리의 젊은 청년들에게 창업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창업을 꿈꾸는 이들에게 창업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문헌연구를 통한 방법으로 기존 데이터 즉, 연구자료 및 사례, 정부의 정책, 통계자료, 외국의 사례 등을 살펴 보면서 청년창업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청년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몇가지 개선방안을 함께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서론인 1장, 본문인 2, 3장, 4장, 결론인 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 2. 청년창업 이론 및 현황

### 1.1 청년창업 이론

### 1.1.1 창업의 개념

창업이란 새로이 기업을 만드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기업이 정신과 능력을 갖춘 개인이나 소수의 인원이 내·외 환경으로부터 얻은 사업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업목표를 세워 사회기업에 물적·인적자원을 투입하여 재화의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의 사업을 시작하는 것을 창업이라 한다. 그러나 개인적인 입장에서 기존의 사업체를 인수하는 것이든 완전히 처음부터 사업체를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든 모두 창업이고, 다루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유형 또는 자금의 대소와 관계없이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면 이는 곧 창업이라 할 수 있다. 법률적 의미에서 창업의 정의는 다소 엄격한데 그것은 창업 지원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려는 방어적 입장에서 초래된 것이다. 1986년 제정(법률 제3881호 1986년 5월 12일 제정 공포)되어 2001년 3월에 개정된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1항에 따르면 “창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법률의 제2조 2항은 ‘창업자라 함은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 및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3]. 대학창업의 개념은 학자가 주장하는 관점에 따라 다양한 정의가 내려지고 있으며 문헌상으로도 통일된 정의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 창업의 정의는 매우 다양하므로, 연구자들이 창업을 언급할 때 명확히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아야 할 것이다[4].

### 1.1.2 창업의 유형

창업은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 질 수 있으며 이러한 창업의 유형들은 규모나, 종류, 성격 등 여러 가지 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러나 크게 소규모 창업과 벤처기업 창업의 형태로 나누어 살펴볼 것이다. 먼저 소규모 창업에 대하여 살펴보면, 1953년 미국의 소규모 사업 법령에서는 소규모 사업을 창업주나 소유주가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종속적으로 지배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소규모 사업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고재운은 (2006) 미국소규모사업협회(SBA)에서는 소규모 사업에 대한 기준에 대해 20명 미만을 매우 작은 소규모 사업, 20명에서 99명까지를 소규모 사업이라고 정의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소규모 사업의 특징으로 창업자가 소유주이므로 경영이 독립적이고, 투자 자본은 소유주나 몇몇 사람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5].

### 1.1.3 창업동기

일반적인 창업동기 요인으로는 일에 대한 불만족, 사회기업회의 인식, 경영자가 되고 싶은 욕망, 자유와 유연성에 대한 욕구, 재정적 독립을 위한 자금 확보의 필요성, 독립적인 사업의 운영, 야망의 실현, 지식과 기술의 사용, 일의 경험이나 훈련의 연속성, 개인적인 도전, 성취욕구 등의 요인이 창업동기 요인으로 강조되었다 (Lee-Gosselin & Grise, 1990). 이상석(2006)은 그 외의 창업동기 요인으로 가족과 친구의 권유, 가족기업의 승계, 적절한 일의 발견, 정부의 지원, 자아실현 등을 추가 하였다. 청년의 창업동기에 관한 지금까지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Leffel(2008)은 대학생들의 창업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창업에 대한 인식, 진취성, 창업의 성공가능성으로 설명하고 있다. 창업이 바람직하다는 인식을 가질수록, 개인 행동성향이 진취적일수록, 창업성공의 가능성이 높다고 느낄수록 창업하고자 하는 열망이 높아진다고 보았다. 국내 대학생들의 경우는 자발적 의지에 의한 창업동기와 더불어 일자리 부족 등에 의한 생계형 창업 비율도 높게 나타났다[6].

### 1.1.4 창업의 절차

창업의 기본적인 절차는 [Fig. 1]과 같이 창업사업구상, 사업계획 수립, 계획 수행을 위한 사업 인허가 획득과 회사설립, 영업장 또는 공장 구

축과 관련 소요자금 조달, 조직 확보 및 기업 준비로 구성된다 [(Spinelli and Adams(2012)) [7].



[Fig. 1] Procedure of Business Start-up  
[그림 1] 창업의 절차

## 1.2 청년창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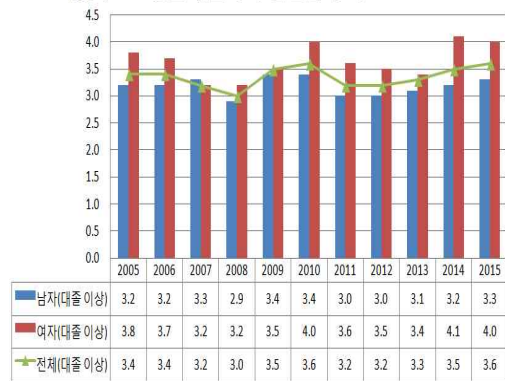
### 1.2.1 대졸자 취업 현황

통계청 경제활동조사 결과 [Fig. 2]에 따르면, 대졸 이상 학력소지자의 실업률은 2015년 3.6%로 전년대비0.1% 증가하였으며, 표에서 제시한 2015년 이래 지난 10년을 살펴 볼 때 정점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남성 대졸이상 학력 소지자의 실업률은 2015년 3.3%로 최근 2012년 이후 계속 증가해 오고 있다. 여성 대졸이상 학력 소지자의 실업률은 2015년 4.0%로 전년 대비 0.1% 감소했지만, 여전히 높다. 또한 여성 대졸자의 실업률이 남성 대졸이상 실업률 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8].

[Fig. 3]은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매년 발표하고 있는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건강보험 및 국세 DB연계 취업통계조사의 취업률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취업자’는 조사기준일(12월31일) 당시 건강보험 가입자, 교내취업자, 해외취업자,농림어업종사자,개인 창작활동 종사자,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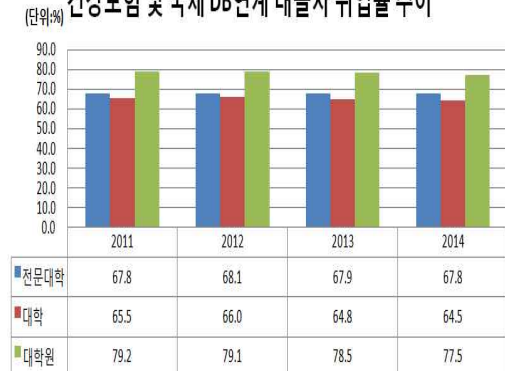
인 창(사)업자 및 프리랜서로 정의하고 있다. 건강보험 및 국세 DB연계 취업률을 산출한 2011년 이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의 취업률 추이를 살펴보면, 대졸자의 취업률은 2011년에서 2012년 사이 잠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다가, 2012년 이후 감소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2014년 대졸자 건강보험 및 국세 DB연계 취업률은 64.5%로 전년 대비 0.3%p 감소하였다. 2014년 대학원 취업률은 77.5%, 전문대학 취업률은 67.8%를 나타내고 있으며, 모두 전년 대비 감소하였다[9].

성별 대졸자의 실업률 추이



[Fig. 2] Progress of college graduates' unemployment rate by gender  
[그림 2] 성별 대졸자 실업률 추이

건강보험 및 국세 DB연계 대졸자 취업률 추이



[Fig. 3] Progress of college graduates' employment  
[그림 3] 대졸자 취업률 추이

1.2.2 청년창업 현황

청년층의 창업에 관련한 실제적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여기에서는 경제활동인구조사 비임금근로 조사를 기반으로 청년층 창업 실태 및 자영업주 특성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청년층은 고용률 및 실업률 산정 또는 정책적 지원 등을 위한 연령대 범위 규정에서 일반적으로 만 15세에서 29세의 연령 범위에 준한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경제활동인구조사의 데이터 중 만 15세에서 29세에 해당하는 인구를 청년층으로 정의하고 이를 기반으로 살펴보면, 대학생의 창업지원을 위한 시사점을 얻기 위한 것이 목적이므로 고졸이하인 경우와 전문대졸 이상인 경우(제학 및 휴학생 포함)로 구분하여 살펴본다[10].

1) 청년층 자영업의 비중과 실태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주의 경우, 외환위기 직후인 '98년 감소하였다가 '99년부터 증가하여 610만 명대 수준('02년~'06년)을 보이다가 2007년 이후 다시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2년 4월 기준 580만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23.4%를 차지하고 있다. 즉 전체취업자의 약 5명 중 1명 이상이 자영업주인 셈이다. [Table. 1]은 우리나라 자영업주 현황을 나타내고 있다 [11].

[Table. 1] Number of business owners in the nation  
[표 1] 자영업 비중 (단위 : 천명, %)

구분	2005	2007	2009	2011	2012
전체 취업자	22,856	23,433	23,506	24,244	24,758
자영업주	6,172	6,049	5,711	5,594	5,804
비중 (%)	27.0	25.8	24.3	23.1	23.4

청년층 자영업주의 산업별 비중을 2012년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Table. 2]와 같다. 만15세에서 29세 사이의 청년층이 자영업주인 경우 교육서비스업을 수행하고 있는 비중이 41.3%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도소매업에 21.4% 정도가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2].

[Table. 2] Proportion of youth business owner by industry (2012)

[표 2] 산업별 자영업 비중 (단위 : %)

구분	전체자영업주			청년층자영업주		
	전체	고용주	자영자	전체	고용주	자영자
전체	100.0	26.5	73.5	100	24.1	75.9
도소매업	21.9	6.4	15.5	21.4	7.6	13.8
운수업	10.4	0.6	9.8	3.2	0.4	2.8
숙박 및 음식업	10.3	5.3	5.1	8.6	6.2	2.4
교육 서비스업	6.2	1.1	5.1	41.3	2.3	39.0
예술, 스포츠, 미디어 관련 서비스업	2.7	0.7	2.0	11.1	2.9	8.2
기타	48.5	12.4	36.0	14.4	4.7	9.7

※ 자료 : 통계청 2012년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

청년층 자영업주의 학력과 연령을 살펴보면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소유자가 약 17만명으로 전체의 83.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을 [Table. 3]을 통해 알 수 있다. 연령대를 살펴보면 25세 이상 29세 이하가 전체 자영업주의 60.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0세 이상 24세 이하가 17.4%로 그 다음 순으로 나타났다 [13].

청년층 자영업주의 창업자금 규모를 살펴보면 [Table. 4]와 같다. 학력은 전문대졸이상이면서 창업자금 규모가 500만원 이하가 전체 창업자의 43%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전문대

줄이상이면서 창업자금 규모가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창업자금 규모가 전체의 16.7%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다음으로 창업자금 규모가 5백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인 창업자금 규모가 전체의 13.0%로 나타났다[14].

[Table. 3] Academic background and age of youth business owner

[표 3] 청년창업자의 학력과 연령 (단위:천명, %)

구분	청년창업자 영주	%	고졸 이하	%	전문대졸 이상	%
전체	205	100.0	34	17.0	170	83.0
15~19세	13	6.4	2	1.2	10	5.2
20~24세	40	19.7	4	2.3	35	17.4
25~29세	151	73.9	27	13.5	123	60.4

[Table. 4] Amount of start-up business finance

[표 4] 창업자금 규모 (단위:%)

구분	전체	신규 창업자 (근속기간 1년미만)	청년층 창업자	고졸이하	전문대졸 이상
전체	100.0	100.0	100.0	17.0	83.0
5백만원 미만	30.8	31.7	46.0	4.9	41.1
5백만원~2 천만원 미만	22.9	20.2	17.0	4.0	13.0
2천만원~5 천만원 미만	22.0	22.3	20.8	4.1	16.7
5천만원~1 억원 미만	16.3	16.8	12.3	3.8	8.6
1억원~3 억원 미만	6.6	7.7	3.8	0.2	3.6
3억원 이상	1.5	1.3	0.0	0.0	0.0

청년층 창업시 자금조달 1순위를 살펴보면 아래 [Table. 5]와 같다. 전체 자영업주의 67.9%가 창업시 자금조달 1순위로 '본인 또는 가족이 마련한 목돈'으로 조달하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다음으로 '은행, 보험회사, 상호신용금고'가 27.5%로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15].

[Table. 5] Ways of procuring money for youth start-up business

[표 5] 창업시 자금조달 방법 (단위:천명, %)

구분	전체 자영업 주%	청년층 자영업 주	%	고졸 이하	%	전문대 졸 이상	%
전체	100	205	100	34	17.0	170	83.0
본인 또는 가족이 마련한 목돈	67.9	105	51.3	27	13.3	77	38.0
친지 또는 동업자	6.7	10	4.9	0.4	0.2	9	4.7
타인에게 빌림(친지, 동업자 이외)	7.7	4	2.0	2	1.0	2	1.0
은행, 보험 회사, 상호 신용금고 등	27.8	12	6.3	3	1.8	9	4.4
정부의 보조 또는 지원 등	1.1	0.8	0.4	0	0.0	0.8	0.4
별도의 자본 필요 없음(무자 본창업 등)	19.4	68	33.5	1	0.7	67	32.8
기타(사채, 대부회사 등 포함)	1.7	2.7	1.6	0	0.0	2.7	1.6

창업에 따른 업종별, 직업별 창업준비기간을 살펴보면 [Table. 6]와 같다. 창업에 소요되는 전체업종별, 직업별 창업에 소요되는 준비기간은 평균 11개월로 나타났으며, 직업별로는 연구원의 경우 11.7개월의 창업소요기간이 평균적으로 나타났다[16].

가장 필요로 하는 창업초기 기업의 성장 지원에 있어서는 '기술개발단계'지원이 45.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양산 및 시장진입단계'지원이 29.1%로 가장 필요하다는 것을 [Table. 7]을 통해 알 수 있다[17].

예비창업단계에 있어서 정부 지원이 가장 필요로 하는 지원은 '자금지원'이 66.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인력지원'이 7.5%로 나타났다. 그 내용은 [Table. 8]과 같다[18].

[Table. 6] Period of start-up business preparation by types of business and jobs

[표 6] 창업준비기간 (단위:월)

구분	전체	2009년		2010년	
		빈도(개)	비중(%)	빈도(개)	비중(%)
전체	11.1	11.4	11.0		
중소제조업	11.6	11.7	11.6		
지식기반서비스업	10.3	10.8	10.1		
교수	11.8	10.5	12.1		
연구원	11.7	11.9	11.7		
대학생	11.1	12.3	10.9		
대학원생	10.5	12.8	9.7		
회사원	10.4	10.9	10.2		
기타	11.8	11.8	11.9		

[Table. 8] Most required support for a preliminary level of business start-up

[표 8] 창업 시 가장 필요로 하는 내용

구분	전체		2009년		2010년	
	빈도(개)	비중(%)	빈도(개)	비중(%)	빈도(개)	비중(%)
전체	2262	100.0	802	100.0	1460	100.0
자금지원	1516	67.0	549	68.5	967	66.2
세금감면	42	1.9	9	1.1	33	2.3
인력지원	149	6.6	39	4.9	110	7.5
경영지원	115	5.1	48	6.0	67	4.6
입지지원 확대	181	8.0	64	8.0	117	8.0
판로지원	122	5.4	52	6.5	70	4.8
창업절차 및 규제 간소화	105	4.6	28	3.5	77	5.3
IR 투자시장 활성화	32	1.4	13	1.6	19	1.3

[Table. 7] Most required support for the growth of business start-up

[표 7] 가장 필요로 하는 창업초기기업 성장 지원

구분	전체		2009년		2010년	
	빈도(개)	비중(%)	빈도(개)	비중(%)	빈도(개)	비중(%)
전체	2262	100.0	802	100.0	1460	100.0
예비창업 단계	237	10.5	79	9.9	158	10.8
기술개발 단계	959	42.4	291	36.3	668	45.8
시제품제작 단계	349	15.4	140	17.5	209	14.3
양산 및 시장진입 단계	717	31.7	292	36.4	425	29.1

[Table. 9] Most required support for a beginning level of business start-up

[표 9] 창업초기 가장 필요로 하는 지원

구분	전체		2009년		2010년	
	빈도(개)	비중(%)	빈도(개)	비중(%)	빈도(개)	비중(%)
전체	2262	100.0	802	100.0	1460	100.0
자금지원	1428	63.1	525	65.5	903	61.8
세금감면	76	3.4	19	2.4	57	3.9
인력지원	172	7.6	41	5.1	131	9.0
경영지원	69	3.1	29	3.6	40	2.7
입지지원 확대	101	4.5	30	3.7	71	4.9
판로지원	303	13.4	114	14.2	189	12.9
규제 간소화	21	0.9	9	1.1	12	0.8
IR 투자시장 활성화	58	2.6	23	2.9	35	2.4

창업초기단계 가장필요로 하는 정부지원은 ‘자금지원’이 61.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판로지원’이 12.9%로 나타났음을 [Table. 9]를 통해서 알 수 있다[19].

2) 대학생 창업에 대한 태도

구체적으로 창업에 대한 활동과 의사 결정을 하지 않았더라도, 일반적인 대학생들이 창업에 대한 어떤 의향을 지니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은 청년층의 창업과 관련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우선 전반적인 대학생의 창업에 대한 의향과 인식을 파악하여 청년층 창업지원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온라인 조사를 실시하였다[20]. 온라인 조사를 통한 대학생들의 창업의향에 대한 통계자료를 인용하여 그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의 내용과 같다. 먼저 응답조사자의 특성부터 살펴보면 [Table. 10]과 같다 [21].

조사를 위한 표집은 교육과학기술부 교육통계자료의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의 제적학생수(재학생수, 휴학생수)자료에 근거하여, 대학유형별(전문대학/4년제대학), 대학소재지별로 비례할당 표집을 실시하였으며, 남녀 성별에 따라서는 5:5 할당을 하였다.

먼저 창업에 대한 의향을 질문한 결과, 대학생 63.3%는 창업 준비 중이거나(4.9%) 구체적이지는 않더라도 향후 창업에 대한 의향이 있는 것(58.4%)으로 응답하였고, 36.7%는 창업할 의향이 없는 것으로 답하였다[22].

[Table. 10] Characteristics of survey respondents  
[표 10] 응답조사 특성

구분		빈도 (명)	비율 (%)	
성별	남	472	47.2	
	여	528	52.8	
소속 대학별 학년	2,3년제 대학	1학년	54	19.9
		2학년	180	66.2
		3학년	38	14.0
		소계	272	100.0
	4년제 대학	1학년	105	14.4
		2학년	190	26.4
		3학년	213	29.3
		4학년(8학기 이상 포함)	220	30.2
		소계	728	100.0
		합계	1000	100.0
전공 계열	인문.경상. 사회 계열	인문계열	182	18.2
		경상계열	130	13.0
		사회계열	144	14.4
		소계	456	45.6
	이공계열	자연계열	84	8.4
		공학계열	252	25.2
		소계	336	33.6
	의약계열	의약계열	82	8.2
	교육계열	교육계열	41	4.1
	예체능계열	예체능계열	85	8.5
	합계	1000	100.0	

[Table. 11] Intention of starting up business by Junior or college and university students

[표 11] 대학 및 전문대학 창업 중요도 조사  
(단위:명,%)

구분	전문대학	4년제대학	전체
향후 창업할 의향은 있으나, 구체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지는 않다.	175	409	584
	64.3	56.2	58.4
현재 창업 의향이 있고, 실제 창업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다.	14	35	49
	5.1	4.8	4.9
창업할 의향이 없다.	83	284	367
	30.5	39.0	36.7
합계	272	728	1000
	100.0	100.0	100.0

창업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대학생의 경우, 창업을 고려하는 이유에 대해, 창업을 통해 일반적인 직장인 생활이 아닌 자신의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일을 하며(50.7%), 자신의 아이디어를 사업화(45.7%)하고자 하는 기업가정신을 실현하고자 하는 응답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대학유형별로 살펴보면, 전문대학에 소속한 대학생들은 창업할 의향이 없는 경우가 30.5%이나 4년제 대학생들은 39.0%인 것으로 나타나, 전문대학이 4년제 대학생에 비해 창업에 대한 의향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대학 학생들이 4년제 대학의 학생들보다 창업에 대한 고려를 다소 많이 하고 있는 현상은 첫째, 상대적으로 청년층 고용시장에서 전문대졸자가 프리미엄을 가질 수 없을 것이라고 기대하여 현실적인 일자리 진입방안을 고려하고 있거나, 둘째, 전문대학에 보다 실용적인 학과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고려하여 볼 수 있다[23].



[Table. 12] Reasons of starting up business Junior college and university students  
 [표 12] 대학 및 전문대학 창업이유 (단위:명,%)

구분	1순위			2순위		
	전문대학	4년제대학	전체	전문대학	4년제대학	전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서	63	172	2.5			
	33.3	38.7	37.1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싶어	69	128	197			
	36.5	28.8	31.1			
나의 아이디어를 사업으로 실현하고 싶어서	75	214	289			
	39.7	48.2	45.7			
나의 전문영역을 키우고 싶어서	65	135	200			
	34.4	30.4	31.6			
취업이 어려워져서(취업경쟁이 심해서)	36	131	167			
	19.0	29.5	26.4			
나의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일을 하기 위해서	88	233	321			
	46.6	52.5	50.7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61	141	202			
	32.3	31.8	31.9			
기타	2	4	6			
	1.1	0.9	0.9			
합계	189	444	633			
			255.5			

1순위 지원 희망 분야는 대학유형별로 다소 차이를 보였는데, 4년제 대학의 학생들은 ‘창업관련 법적, 경제적 지식과 정보교육’ 및 ‘창업 자본금 지원’에 대한 요구가 전문대생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전문대학생은 4년제 학생에 비해 ‘창업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교육 및 기술훈련, 경영교육 및 경영컨설팅’에 대한 희망 수준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즉 상대적으로 전문대 재학생들은 실무분야와 경영기법에 대한 실제적 지원과 컨설팅 방식을 선호하는 반면, 4년제 대학생들은 창업에 관련된 기초 소양교육과 인프라조성 지원을 더욱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4].

[Table. 13] Field hoping to be supported  
 [표 13] 인프라조성 지원 (단위:명,%)

구분	1순위			2순위		
	전문대학	4년제대학	전체	전문대학	4년제대학	전체
창업 관련 법적, 경제적 지식과 정보교육	15	60	75	33	75	108
	7.9	13.5	11.8	17.5	16.9	17.1
창업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교육 및 기술훈련	42	86	128	40	87	127
	22.2	19.4	20.2	21.2	19.6	20.1
경영교육 및 경영컨설팅	30	36	66	23	64	87
	15.9	8.1	10.4	12.2	14.4	13.7
창업 자본금 지원	71	193	264	27	92	119
	37.6	43.5	41.7	14.3	20.7	18.8
창업 공간 및 시설 지원	17	38	55	34	71	105
	9.0	8.6	8.7	18.0	16.0	16.6
유통 및 판로개척 지원	14	31	45	32	55	27
	7.4	7.0	7.1	16.9	12.4	13.7
합계	189	444	633	189	444	633
	100	100	100	100	100	100

전공계열별 창업의향 대학생의 희망 업종에 대한 결과는 전공별로 다소 차이가 존재한다. 우선, 인문계열과 경상계열 및 사회계열은 요식업에 대한 선호가 가장 높았으며, 사회계열은 사회복지 및 의료보건 업종에 대한 고려를 하고 있는 경우도 15.3% 정도가 있었다. 그러나 대체로인문사회계열은 전공과 무관한 업종을 고려하는 경향이 강하였다. 경상계열의 경우는 다양한 분야에 대한 관심이 있었으나 요식업과 문화·예술·스포츠·레저·공연 분야와 쇼핑물 및 유통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

[Table. 14] industry for the start-up business by major  
 [표 14] 전공별 창업분야 (단위:명,%)

전공계열	1순위	2순위	3순위
인문계열	요식업	문화,스포츠	쇼핑물,유통
	45.6%	17.5%	9.6%

경상계열	요식업	문화.스포츠	쇼핑몰.유통
	34.1%	15.3%	10.6%
사회계열	요식업	사회복지.보건의료	쇼핑몰.유통
	43.5%	15.3%	10.6%
교육계열	교육서비스	요식업	문화.스포츠
	52.0%	32.0%	12.0%
자연계열	요식업	농수축산 관련	화학.바이오 7.7%
	57.7%	9.6%	쇼핑몰.유통 7.7%
공학계열	IT관련	공학관련 업종 24.8%	요식업
	28.4%	(전기전자 12.4% 건설.토목.기계 12.4%)	22.5%
의약계열	요식업	사회복지.보건의료	-
	52.5%	32.5%	-
예체능	문화.스포츠	요식업	쇼핑몰.유통
	39.7%	17.5%	9.5%

창업을 생각하게 된 계기로는 ‘나의 아이디어를 사업으로 실현하고 싶어서’가 149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나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일을 하기 위해’이 69명, ‘나의 전문영역을 키우고 싶어서’67명,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싶어서’49명 순으로 나타났다. ‘취업이 어려워서’라는 응답은 16명으로 3.9%에 불과했다[26].

[Table. 15] Motivation for the business start-up  
[표 15] 창업 동기

구분	빈도(명)	백분율(%)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서	31	7.6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싶어서	49	12.0
나의 아이디어를 사업으로 실현하고 싶어서	149	36.6
나의 전문영역을 키우고 싶어서	67	16.5
취업이 어려워서(취업경쟁이 심해서)	16	3.9
나의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일을 하기 위해	69	17.0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15	3.7
기타	11	2.7
전체	407	100.0

창업 대학생의 창업성공에 대한 기대감은 평균 3.49%(SD=.865)로 나타났으며, 그 내용은 다음표와 같다. 창업성공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거나 매우 높다고 응답한 학생과 낮거나 매우 낮다고 응답한 학생들에게 그 이유를 질문하였다. 창업성공에 대한 기대감을 갖는 이유로는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97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창업 아이템에 대한 확신’이 43명으로 높게 나타났다[27].

[Table. 16] Reason for a high expectation on the start-up business success

[표 16] 창업에 대한 성공 기대감

구분	빈도(명)	백분율(%)
창업 아이템에 대한 확신	43	19.8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	97	44.7
기업가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어서	21	9.7
현재 체계적인 준비를 하고 있어서	20	9.2
주변에서 창업성공에 대한 롤 모델을 보면서	24	11.1
창업하려는 분야에 대한 경험과 자격증 소유	9	4.1
기타	3	1.4
합계	217	100.0

준비하는 사업이 잘 되었을 때 기대하는 순이익은 ‘월500만원~1,000만원 미만’이 176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월 500만원 미만’이 102명 순으로 나타났다[28].

[Table. 17] Expected net income when doing start-up business well

[표 17] 창업준비 중 순이익에 대한 기대

구분	빈도(명)	백분율(%)
월 500만원 미만	102	25.1
월 500만원 ~ 1000만원 미만	176	43.2
월 1000만원 ~ 2000만원 미만	70	17.2
월 3000만원 이상	59	14.5
합계	407	100.0

1.2.3 창업지원현황

1) 정부의 지원

2015년 기준으로 정부 창업지원사업(중앙부처 지원) 수는 9개, 부처99개 사업으로 진행되며, 투·융자, 보증을 제외한 일반적인 창업지원사업 예산은 6,020억원('15년 예산기준)의 규모이다[29].

[Table. 18] Business number & distributing budget by government departments

[표 18] 정부 창업지원사업 수

	중기청	미래부	문체부	농식품부	해수부	교육부	고용부	환경부	농진청	계
사업 수(개)	47	39	4	3	2	1	1	1	1	99
'15예산(억원)*융자,보증제외	3,800	1,653	174	206	24	12	141	3	5	6,020
'15(억원) 예산*융자,보증포함	209,500	1,653	174	206	24	14	141	3	5	211,720

부처별로는 중소기업청이 47개 사업으로 가장 많고, 미래부 39개, 문체부 4개, 농식품부 3개 순이며 여타 부처는 2개 이하로 나타났다. 출처: 중소기업청 보도자료(2015.10.15.)

지원내용별로 보면 사업화를 위한 패키지형 지원사업이 40개로 최대이며, 판로·마케팅·해외진출이 12개, 창업교육과 시설·공간제공이 각각 11개, 네트워킹·행사가 10개 순으로 나타났으며, R&D 지원사업은 사업 수는 적으나, 지원 예산액은 2,000억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출처: 중소기업청 보도자료(2015.10.15.)

중소기업청의 경우 2015년도 예비창업자와 창업 초기기업의 기술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1조 5,400억원 규모의 창업지원자금을 공급하며, 창업교육·사업화 등 21개 창업지원사업에 지원되는 예산 규모는 전년도('14년, 1조 5222억원)에 비해 7.7% 증가한 1조 5,393억원이 편성되었고, 특히, “창업선도대학” 예산의 대폭 증가(508억원→651억원)로 지역 우수 창업자들이 창업지원사업 접근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

대되며, 그 외에도 “창업인턴제” 및 “제도전성공 패키지프로그램”이 신규 도입되고, “청소년 비즈쿨” 예산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잠재적 창업군 및 재창업자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었다(중소기업청, 2015). 중소기업청의 2015년 창업지원 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다[30].

[Table. 19] Industry situations of government support 2015

[표 19] 2015년 중소기업청 창업지원사업 현황

사업명	모집구분		예산(억원)
	지원대상	주관(수행)기관	
청소년 비즈쿨	창업교육 초중고등학생	초중고교	140
창업아카데미	예비창업자 및 1년 미만 창업기업, 대학생	대학연구기관 등	80
창업사업화			1,613
창업선도대학 육성	예비창업자 및 1년 미만 창업기업	창업선도대학	652
창업맞춤형사업화 지원	예비창업자 및 1년 미만 창업기업	대학 및 민간기관	423
선도벤처연계기술창업지원	예비창업자 및 1년 미만 창업기업	벤처기업협회	75
청년창업사관학교 운영	만 39세 이하 예비창업자 및 3년 미만 창업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260
글로벌 청년창업 활성화	예비창업자 및 3년 미만 창업기업	창업진흥원	53
민·관공동창업자 발굴육성	예비창업자 및 3년 미만 창업기업	창업진흥원	50
대한민국 창업리그	예비창업자 및 3년 미만 창업기업	대학 및 민간기관	15
(신규)창업인턴제	대학(원) 재학 및 미취업졸업생	창업진흥원	50
(신규)제도전성공패키지	성실실패 예비재창업자	창업진흥원	35
시니어창업			40
시니어 창업스쿨	만 40세 이상 예비창업자	대학 및 정부지자체 산하기관	20
시니어 창업센터	만 40세 이상 예비창업자	대학 및 지자체	20
창업보육센터지원	예비창업자 및 3년 미만 창업기업	창업보육센터 사업자	227
1인창조기업			124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1인 창조기업 및 예비 1인 창조기업	지자체, 공공기관	80
1인창조기업 마케팅 지원	1인 창조기업 및 예비 1인 창조기업	민간기업	44
지식서비스 창업			231
스마트창업터	예비창업자 및 1년 미만 창업기업	대학 등 전문기관	99
스마트벤처창업 학교	만 29세 이하 예비창업자 및 3년 미만 창업기업	대학 등 전문기관	132
창업실리콘밸리	예비 창업, 취업자	대학 등 전문기관	18
창업자금(융자)			13,000
일반창업자금	예비창업자 및 7년 미만 창업기업	중진공 및 민간금융기관	12,000
청년전문창업자금	만 39세 이하 예비창업자 및 3년 미만 창업기업	중진공	1,000
총계			15,393

\*출처: 중소기업청 보도자료(2015.1.12.)

### 1.2.4 청년창업 애로사항

창업에 대한 애로사항을 분석한 연구자료를 살펴보면 먼저 외부적 요인으로 사회적 인식과 각종 규제가 있고, 창업자 내부적 요인으로 자본부족, 실패의 두려움, 전문지식의 부족이 있다. 창업행동에의 사회적 영향요인의 하나로서 창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청년들이 경력 선택으로서 창업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결정하는데 영향을 줄 것이다. 특히 창업자에 대한 부정적 사회적 인식은 창업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Gnyawali& Fogel,1994)

박종복(2009)의 연구결과에서는 기업가정신 발현의 애로요인으로 사업실패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및 재기 불가능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수익창출기반 악화, 기업가에 대한 좋지 않은 정서로 경영의욕 감퇴, 과도한 규제 순으로 나타났다. 창업의 꿈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들이 창업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기존의 규제들을 개방형 시장 환경에 맞게 미국 수준에 접근하도록 개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안순권,2011)

이신모(2005)는 한·미·일 대학생들의 창업의식 비교 연구에서 창업애로 요인으로 자본부족, 실패의 두려움, 전문지식의 부족이 주요 요인으로 제시했다. 특히 한국학생들은 높은 창업의지에 비해 전공지식과의 괴리 도전감과 희생각오의 부족, 대학생 창업지원제도에 관한 지식부족, 외적환경의 비우호성 인식 등이 창업을 실행하는데 한계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활성화의 전제가 되는 청년창업 환경조성을 위해 제거되어야 할 애로사항으로 진단된 요인은 체계적인 기업가 정신함양 및 창업교육의 미흡, 사업화 자금의 부족, 창업 후 사후관리의 미흡, 청년창업 관련 인프라 구축 미흡, 창업실패에 따른 재도전 장치 및 재창업 지원 미흡 등이다 양현복(2011)[31].

선행연구에서 언급된 창업애로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자본부족, 창업관련 전문지식의 부족, 사업실패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및 재기 불가능, 수익창출기반 악화, 기업가에 대한

좋지 않은 정서로 경영의욕 감퇴, 과도한 규제 순, 도전정신의 결여, 관련 지원의 미비, 사회적 인프라 부족, 부모 가족의 만류 등이 창업애로 사항으로 나타났다.

## 3. 청년창업 외국의 사례

### 3.1 해외 창업지원 제도

#### 3.1.1 미국

미국의 경우에는 기업가를 존중하고 창업을 고취시키는 사회적 분위기와 스스로 기업을 일으켜 운영하려고 하는 미국인들의 강한 소망이 상승작용을 일으켜 창업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평가 된다. 또한 미국은 직접적인 정부의 창업지원보다는 민간투자자와 대학 및 경영대학원의 지원활동이 주가 될 수 있도록, 민간 재단, 민간기업, 투자단체, 지방정부, 대학 등과의 협력을 통하여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는 것이 주된 특징이라 할 수 있다[32]. 창업자에게 필요한 자원을 연계하여 제공하는 대표적인 서비스로서 'BusinessUSA'를 살펴볼 수 있다. BusinessUSA는 사업체의 설립과 운영, 성장에 관한 모든 제반 서비스와 관련 자원들을 이용자가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하여 놓은 서비스이다. BusinessUSA는 2011년 10월말에 구성되어 베타버전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데, 기업 관련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원 스탑 사이트(one-stop shop)로, 농림부, 상무부, 노동부, 수출입은행, 중소기업청 등 26개 주요 관련기관의 자원이 연계되어 있다 [33]. 이들 지원기관 중 대표적인 사례를 하나로 살펴보면 중소기업청(SBA:Small Business Administration)은 대출과 사업등록, 창업 및 사업운영에 대한 지원을 3C의 개념적 모델(Capita], Contracting, Counselling)에 근거하여 지원을 하고 있다. SBA는 직접적인 개입을 하기 보다는 창업을 하고자 아는 대상자에게 저리로 대출을 해주는 방식과 같은 현금과 관련된 정책(Capital)을 가장 중점적으로 실시하

고 있다. 여러 가지 대출(loan)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창업자들이 가장 희망하는 자금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사업체가 등록 및 설립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갖추기 위한 지원을 실시하는데(Contracting), 대출지원이나 사업체 인증 및 허가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한다[34]. 창업자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서비스 중 하나는 창업을 위한 구체적인 팁과 조언 등을 제공하는 것인데, 이와 관련하여 상담 및 컨설팅과 워크숍 등을 제공한다. 우선 SBA는 온라인창업교육시스템에 해당하는 SBA Learning Center를 통해 창업준비와 관련된 제반 사항들을 제공한다. 이때 교육 내용은, 주로 창업 준비자가 이용할 수 있는 대출이나 보조금, 접근 가능한 공적자원이나 사업계획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 또는 상담인력, 사업 준비를 위해 등록 등 행정적 처리를 해야 하는 사람이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공기관 등과 같은 정보를 활용하는 방법 등을 중심으로 제공한다[35]. 다음은 와튼 SBDC는 와튼 스킴을 기반으로 대학생을 포함한 지역사회의 창업 희망 및 창업 준비자들을 지원하는 기능을 하고 있으며 크게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볼 수 있다. 첫째, 와튼 MBA과정의 대학원생 100여명을 컨설턴트로 배치하여 창업보육프로그램(Business Building Program)을 통해 사업체를 준비하려는 500여명의 창업자들에게 대해 개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창업에 대한 목적을 명확히 하고 워크숍을 등을 통해 기업가 정신을 고양하며,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 타당화시켜 나가고, 초기 준비 작업을 하는 일들을 개별맞춤형으로 서비스하는 것이다. 둘째 집중컨설팅프로그램(High Impact Growth Counseling Program)을 통해, 약60여명의 MBA과정 대학원생들과 학부학생들이 60여개의 사업체에 대해 경영주가 전략적 과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컨설팅하고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셋째, 와튼 프로젝트(Wharton Course Projects)를 통해 지역기반 사업체와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효과적 운영과 성장 방안을 협력하여 도모하는 일을 수행한다[36].

### 3.1.2 영국

영국의 창업지원 제도 중 대표적인 것으로 「Business Link」가 있다. 「Business Link」는 연구개발형 기업이나 창업기업에 대해 영국 전역에서 제공되는 정부차원의 서비스로서, 경영에 필요한 광범위한 정보는 물론 수출 및 자금조달 등에 관한 자문을 제공해 주고 있다. 1933년 무역산업부(DTI)에 의해 도입된 기업지원활동의 원스톱 샵(One-stop shop)으로서, 기업지원 관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단일 접촉지점을 통해 중소기업에 위한 전문적 정보와 조언 통로를 제공하는 업계와 정보 간 지방 제휴활동의 전국 네트워크로서 창업에서 성장 및 승계에 이르는 모든 단계의 비즈니스 활동에 대한 지원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기업에 대한 직접지원보다는 상담, 기본정보 제공, 지원수요 평가, 적절한 지원기관 알선 등을 담당하고 있다. 잉글랜드 지역 42개 카운티에 비즈니스링크 운영단(BLOs)이 설치되어 있으며, 9개 지역개발기구(RDAs)에서 운영 관리하고 있다. 자금 지원은 사업기업규제개혁부(BERR)에서 담당하며, 온라인 서비스는 국세관세청(HM Revenue & Customs)이 자금지원과 운영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지역의 BLO들은 지역상공회의소, 컨설턴트 컨소시엄 등 민간기관들로서 공개경쟁을 통해 3년 단위 계약을 체결하며, 서비스는 원칙적으로 무료로 제공되며, 대부분의 운영비는 BERR에서 지원(연간 약 2,500억원)하고 있다[37].

### 3.1.3 일본

일본 정부의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은 청년층의 기업가정신 함양 및 대학발 벤처기업 사원, 금융지원사업의 3가지 측면으로 살펴볼 수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기업가 정신 함양 및 창업교육

전통적으로 기업가나 창업자가 존경받지 못

하는 동아시아권 문화의 공통된 문화적 특성과 실패에 대한 용인의 유연성이 부족한 사회풍토 등은 일본의 청년 창업 활성화를 저해하는 가장 큰 요소 중에 하나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사회문화적인 풍토는 창업과 관련된 ‘기업가정신’의 부재와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기업가정신을 가지고 있는 노동인구의 비율을 start-up portal의 수를 여러 국가간 비교한 ‘International Entrepreneurship.com’의 결과에서도 일본은 2010년 3.3%로 다른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이가 있다(뉴욕타임즈, 2011. 10.4)[38].

#### 나) 대학발 벤처 지원사업

창업과 관련하여 대학은 단순히 향후 창업가가 될 청년층을 교육하는 곳이 아니라, 대학 내의 연구지식과 역량을 실용화하여 창업을 통해 사회에 환원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대학발 벤처에 대한 지원은 이러한 대학의 역할에 대한 기대에서 비롯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대학벤처의 경우 창업 후 제품화 과정에서 인력확보, 자금조달, 판로개척 등에 특히 어려움을 겪는 것이 일반적인 바, 일본 정부는 이와 관련된 문제점 해소를 위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관련 사업의 주요 내용으로는 해당 대학 출신 경영자 등을 활용한 경영자문, 대학기업 간 인재교류 촉진, 해당 인재의 연구성과에 기인한 사업화 지원 등이 있고 이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판로개척과 관련해서는 대학 스스로 대학발 벤처기업 제품에 대한 고객 및 시장평가를 향상시키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작성, 이를 제공하고, 대학발 벤처기업들이 대학명을 상품명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양현봉 외, 2011)[39].

#### 다) 창업자금 및 엔젤투자 지원

일본 정부의 창업지원정책 중 금융지원의 측면은 창업자금지원과 엔젤투자의 두 가지 측면에

서 살펴볼 수 있으면 우선 창업자금 용자 및 신용보증 지원과 관련하여 일본 정부는 여성 및 30세 미만 청년 등의 창업지원을 위해 일본 정책금융공사를 통한 저금리 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관련 지원실적은 1999~2010년 기간 동안 9만 222건, 4,508억 엔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 예비자 혹은 창업 5년 미만 사업자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을 심사하고 적절성이 검토될 시 무담보 신용보증 지원을 실시하는데 2009년 지원실적은 1만 4,519건, 793억 엔이었다[40].

#### 3.1.4 프랑스

프랑스 정부의 창업지원 제도는 1인 자영 사업자의 지원제도를 살펴보면 지원제도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 1) 1인 자영 사업자(auto-entrepreneur)

프랑스 정부는 지난 2008년 중소기업의 성장을 바탕으로 경제난을 해소하기 위해 경제현대화법(Loi de modernisation de l'économie)을 제정, 2009년부터 시행하였다. 여기서 탄생한 제도가 ‘1인 자영 사업자(auto-entrepreneur)’이다. 자영 사업자 제도는 개인 창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등록절차를 간소화하고 세금 및 회계 규정을 유리하게 한 것으로 “매출이 없으면 세금도 없다(pas de chiffres d'affaires = pas de chrtges sociales ou fiscales)”는 원칙으로 요약된다. 자영 사업자들에 대한 혜택은 다음과 같다.

- ① 세금 : 총매출에 대한 최소 고정 비율의 세금만을 부과한다. 세율은 업종별로 다른데 예를 들면, 서비스업은 매출의 21.3%, 판매업은 매출의 12% 등이다.
- ② 회계 : 수입 및 지출을 기록하는 회계장부를 구비할 필요가 없다. 일일 수입만을 간단하게 기록하면 되므로 회계사에게 의뢰할 필요가 없으며 이는 비용 절감 효과를 갖는다.

- ③ 매출 제한 : 세금 혜택은 일정 매출액 한도 내에서 가능한데, 매출액 한도는 업종별로 다르다. 예를 들면, 2012년 현재, 서비스 기반의 비즈니스, 또는 전문과 활동에서 연 €33,300, 판매, 바/레스토랑 또는 숙박 시설의 경우 연 €83,200 등이다.
- ④ VAT : 재화의 구매 및 판매 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 ⑤ 등록 절차 : 자영 사업자는 상공회의소 (Chambre de Commerce) 또는 직업청 (Chambre de Metiers)에 직접 등록할 필요가 없으며, 인터넷 (<http://autoentrepreneur.fr/>)을 통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보내면 사업등록번호가 부여된다.
- ⑥ 사업용 재산세 면제 : 자영 사업자는 창업 당해 연도를 포함, 3년간 사업용 재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혜택에서 제외되는 업종이 있는데, 부동산 중개 및 개발자, 자산 구매 및 판매 전문가, 금융회사, 대여회사, 예술가, 작가, 과학 및 스포츠 기반 활동 등이다. 자영 사업자 제도의 특징은 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자격에 제한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즉 구직자는 물론이고 봉급생활자, 학생, 연금 생활자, 공무원까지 성인이라면 등록할 수 있다. 또한 최소 자본금도 매우 낮은 편이다. 유한 책임회사(SARL) 또는 개인 사업체(EURL) 형태의 창업은 최소 자본금이 €1이며, 단일 주식회사(SAS)는 €37,500이다[41].

**2) 창업희망자와 창업자에 대한 연수지도**

(1) CCI de France (프랑스 상공회의소)

프랑스 전역의 상공회의소에서는 창업희망자 및 창업자를 위한 연수를 실시한다. 연수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사업 개발 : 금융 이용 방법, 파트너 찾기
- ② 교육 및 고용 : 인적자원, 학습, 훈련
- ③ 정보 및 혁신:정보보호, 의사소통, 금융협력
- ④ 국제 : 국제의제, 수출, 수출 보조금, 관련기관
- ⑤ 지속 가능한 개발 :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환경과 에너지, 보건 및 안전규제, 예코 기업, 평가 및 관리, 산업 환경에서 교육
- ⑥ 절차 : 사업 수속을 위한 센터

연수는 크게 3단계로 구분된다. 제 1단계는 반나절 일정으로 이루어지는 오리엔테이션이다. 여기에서는 창업희망자에게 각종 정보원 수록집을 배부한다. 또한 어떤 지원 서비스가 적합한지를 판단하는 재료로 삼기 위해 창업희망자에 대해 인터뷰를 실시한다.

제2단계는 「5 jour pour Entrepredre(창업을 위한 5일)」 이라 명명한 연수이다. 5일간에 걸쳐 창업에 필수조건인 기초지식(설문조사와 경영, 재무 등)를 학습한다. 또한 개별 컨설팅도 실시하고 있다. 컨설턴트가 사업계획을 평가해 창업희망자에게 Pass Entrepredre(창업 허가증)를 교부한다. 창업 허가증을 받은 창업희망자는 상공회의소와 연계한 공증인과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의 지도를 받거나 상공회의소를 차입금의 신용보증을 확보할 수 있다.

제3단계는 창업후의 개별지도이다 창업 후 3년에 걸쳐 창업기업에 대해 경리 측면과 매니지먼트면에서의 조언, 수출지원, 자금조달을 탐색하여 창업기업의 성장환경을 정비한다[42].

**3) 자금 지원**

(1)BDPME(Banque du Development despetites et moyennes entreprises : 중소기업개발은행)

(2)BDPME(Banque du Development des petites et moyennes entreprises : 중소기업개발은행)는 중소기업을 위한 용자와 신용보증하는 정부계 금융기관이다. BDPME는 창업 전 혹은 창업 후 3년 미만인 기업

을 대상으로 신용보증과 용자를 제공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이중 PCE(Pret a la Creation d'Entreprises : 창업기업을 위한 용자)는 20,000 유로에서 70,000 유로까지 보증없이 중장기적으로 용자하는 프로그램이다[43].

### 3.1.5 덴마크

덴마크는 EU 통계에서 4년 연속 '기업 경영하기 좋은 나라' 1위로 뽑힐 만큼 창업 절차가 간단하고 기업 경영이 용이하다. 무엇보다 덴마크는 청년들의 창업을 장려하기 위해 교육과 문화 부문에서 다양한 지원을 펼친다. 청년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위를 취득한 고학력 청년들을 신생 기업과 연계시켜준다. 덴마크 국제 기업가 아카데미(The International Danish Entrepreneurship Academy:IDEA)에서는 젊은 박사학위 취득자들이 신생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부문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마련해 줌으로써 고학력자들이 창업에 대한 기여함과 동시에 일자리를 얻도록 해 주고 신생 기업은 연구 인력을 확보하므로써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된다. 둘째, 창업자들이 네트워킹을 통해 보다 쉽게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웹 기반 인프라가 마련돼 있다. 정부는 신생 기업들이 요구할 경우 외부 컨설팅을 주선하거나 직접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 창업가이드(www.startguiden.dk)라는 웹 포털은 여러 정부 기관들을 모두 연결하고 있는데 창업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한 번에 가이드 해 줄 수 있다.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위한 각종 클럽을 연결한 망도 정부에서 제공한다. 2007년에 처음 시작된 네트워킹 서비스는 신생기업들이 쉽게 관련 연계 기업들을 찾고 파트너쉽을 맺을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되고 있다. 셋째, 자본금 마련과 세제혜택 부문이다. 덴마크 성장기금(The Danish Fund)은 신생기업에 직접적으로 투자하거나 대출을 하고 있다. 특히 의료 기술, 생활

과학, 하이테크 분야 벤처 기업들에게 우선적으로 대출해 준다. 정부가 기금의 보증을 서고 실제 자금운용은 민간금융기관에서 맡고 있다. 창업에 부과하는 특별 세제가 적용되고 연금 수령자가 창업을 하는 경우에는 역시 인하된 세율이 적용된다[44].

지금까지 해외의 창업지원제도를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이 그 내용을 요약할 수 있다. 먼저 미국의 경우에는 민간투자자와 대학 및 경영대학원의 지원활동이 주가 될 수 있도록, 민간재단, 민간기업, 투자단체, 지방정부, 대학 등과의 협력을 통하여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는 것이 주된 첫 번째 특징이며, 다음으로는 사업체의 설립과 운영, 성장에 관한 모든 제반 서비스와 관련 자원들을 이용자가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두 번째 특징이다. 영국의 경우 영국 전역에서 제공되는 정부차원의 서비스로서, 경영에 필요한 광범위한 정보는 물론 수출 및 자금조달 등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었다. 일본 정부의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은 청년층의 기업가정신 함양 및 대학발 벤처기업 사원, 금융지원사업의 3가지 측면에서 청년창업지원제도가 활성화 되고 있었다. 프랑스의 경우 개인 창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등록절차를 간소화하고 세금 및 회계 규정을 유리하게 한 것과, 프랑스 전역의 상공회의소에서는 창업희망자 및 창업자를 위한 연수를 지원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덴마크의 경우 첫째, 학위를 취득한 고학력 청년들을 신생 기업과 연계시켜준다는 특징이 있었다. 둘째, 창업자들이 네트워킹을 통해 보다 쉽게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웹 기반 인프라가 마련되어 있었다. 셋째, 자본금 마련과 세제혜택 부문에서 용이하게 지원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4. 청년창업 가이드라인

청년창업을 계획하고 있는 대학의 재학생 및 졸업생들을 위한 창업에 대한 지원부문을



세세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형태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금융지원, 창업지원, 보육지원, 기술지원, 인력지원, 판로지원, 컨설팅지원, 법률세제지원 등의 창업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각 지원분야별 지원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 4.1 금융지원

창업에 필요한 금융지원 유형은 크게 대출, 투자, 보증, 보조금, 보험·공제의 형태로 지원이 된다.

- 1) 대출
- 2) 투자
- 3) 보증
- 4) 보조금
- 5) 보험, 공제

#### 4.2 창업지원

기업을 처음 시작하기 위한 창업 준비 단계부터 업종별 경영전략까지 단계별 절차를 확인하여 지원하는 부분이다.

##### 4.2.1 창업가이드

기업을 처음 시작하기 위한 창업준비단계부터 업종별 경영전략까지 단계별 절차를 확인하는 내용이다.

##### 1) 창업준비단계

- ① 창업이해
- ② 창업아이템 선정
- ③ 사업타당성 분석
- ④ 사업계획서 작성

##### 2) 회사설립단계

- ① 입지선정

- ② 회사설립
- ③ 공장설립 및 등기
- ④ 창업자금조달

#### 3) 창업경영단계

- ① 창업마케팅전략
- ② 창업인사관리
- ③ 창업세무

#### 4) 업종별경영전략

- ① 외식업
- ② 유통업
- ③ 서비스업
- ④ 인터넷비즈니스

##### 4.2.2 기술창업가이드

- 1) 기술창업 준비단계
- 2) 기술창업 및 사업개시 단계
- 3) 단계별 성장전략
- 4) 기술분야별 사전 검토사항

#### 4.3 보육지원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고자 하는 예비창업자에게 제공하는 창업보육과 관련된 지원정보를 제공하는 지원프로그램이다.

#### 4.4 기술지원

기술이 기반 된 창업기업에게 다양한 지원 제도로 성장발전에 도움을 주는 지원제도이며, 지원 내용을 살펴보면 기술개발지원, 기술인증, 특허, 인증 및 특허에 대한 지원이다.

- 1) 기술개발지원
- 2) 기술인증

3) 특허

4) 인증 및 특허 안내

4.5 인력지원

고용지원 및 교육, 연수 지원에 대한 내용이 다.

1) 고용지원

2) 교육, 연수

4.6 판로지원

전시, 박람회를 통해 제품과 서비스를 홍보하여 효과적인 마케팅채널로 활용이 가능하다.

1) 전시, 박람회

전시, 박람회를 통해 제품과 서비스를 홍보하여 효과적인 마케팅채널로 활용이 가능하다.

2) 마케팅 지원

마케팅 분야의 종합정보를 통해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다.

3) 수출 지원

해외 토털마케팅에서부터 마케팅 대행에 이르기까지 해외시장 개척에 도움을 준다.

4) 해외진출 가이드

해외투자진출을 통해 기업은 다양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효율성을 극대화한다.

4.7 컨설팅지원

1) 경영컨설팅

창업, 기술지도, 경영컨설팅에 이르기까지 창업기업에게 필요한 컨설팅을 지원한다.

4.8 법률세계지원

1) 창업 시 체크 법률

기업경영에 있어 관련법을 숙지하여 경영에 장애요인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2) 중소기업의 세법

중소기업의 기업규모 및 매출규모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세법을 적용 받게 된다.

3) 조세지원제도

사업 단계별로 제공되는 조세지원 정책을 통해, 기업의 원활한 창업과 사업전개 및 구조조정을 지원한다.

4) 중소기업 회계

청년 일자리 창출과 기업구조조정을 세제측면에서 지원하고, 가계소득 증대를 통해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하면서 과세형평성과 세원투명성을 실현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45].

위의 창업지원은 크게 8가지 지원분야별로 나누어 창업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진다. 창업지원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 지원방법, 절차, 등은 지원부서와 상담을 거쳐 진행하고, 창업계획서를부분과 지원내용을 종합하여 창업을 진행한다면 창업에 대한 과정이 비교적 쉽게 진행 될 것으로 예측이 된다..

5. 결론 및 요약

청년창업이 취업불황을 타개하고, 더 나아가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확산이 되려면 청년창업을 준비하며, 미래를 설계하는 대학 청년들에게 창업에 관한 기본적인 과정을 이해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창업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창업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함이 연구의 목적 이었다. 다만 그 내용이 이론적이고, 서술적인 내용에 치우쳐있어서 아쉬운 점도 있지만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또한, 청년창업이 우

리사회에 현실하게 정착하려면 몇 가지 선행되어야 하는 과제가 있다. 이를 하나씩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상공인을 활용한 멘토그룹핑 창업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 우수한 소상공인의 장인정신을 계승하고, 더 나아가 발전된 창업을 설계할 수 있는 창업교실 운영이 필요하다. 둘째 이를 교육하고 지원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법정 장려수당을 청년창업 예산에 반영하여 지급함으로써 소상공인 장인의 가계안정을 가져다주고 창업교실 운영자에게 자긍심과 사명감을 고취 시켜야 한다. 다음으로 청년창업 지원제도는 원스톱 서비스 형태로 지원되어야 한다. 창업지원 기관이 여러 개의 기관으로 운영이 되어서 창업 프로세스가 너무 복잡하고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으므로 그 절차를 아주 간결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창업지원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창업을 다양화 할 수 있게 지원하고 창업 주체가 성장이 될 수 있도록 정보와 시장기능 역할을 하여야 한다.

References

[1] 황정원. '통계로 본 우리나라 대졸자의 취업현황'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2016.  
 [2] 손영일. 동아일보 기사. 2016년 11월 10일  
 [3] 김종하. '청년 창업자의 창업특성이 사업성과에 미치는 영향'.호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p9, 2009  
 [4] 전계서. pp10  
 [5] 양정식. '멘토링을 통한 창업기업 성공을 위한 선행요인 도출'-정부지원사업 수혜 기업을 대상으로-한밭대학교 창업경영대학원논문.pp18~pp20. 2016  
 [6] 송중호. '청년창업 성공확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호서대학교 학위논문 pp13~pp14.2011  
 [7] 손중용. '청년창업 성공요인과 지원전략과제에 관한 연구'.배재대학교논문. 2015  
 [8] 황정원. '통계로 본 우리나라 대졸자의 취업현황'.한국교육개발연구원.pp110, 2016.  
 [9] 전계서.pp111  
 [10] 이요행. '대학생 창업활동 및 창업지원제도현황 분석'. 고용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 pp73. 2013.  
 [11] 전계서.pp74

[12] 전계서.pp76  
 [13] 전계서.pp78  
 [14] 전계서.pp80  
 [15] 전계서.pp80  
 [16] 전계서.pp91  
 [17] 전계서.pp92  
 [18] 전계서.pp94  
 [19] 전계서.pp97  
 [20] 전계서.pp109  
 [21] 전계서.pp111  
 [22] 전계서.pp112  
 [23] 전계서.pp119  
 [24] 전계서.pp125  
 [25] 전계서.pp131  
 [26] 전계서.pp144  
 [27] 전계서.pp146  
 [28] 전계서.pp147  
 [29] 김민정. '대학생의 사회적 창업가 정신과 대학 및 정부의 지원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학위논문. pp43.2016  
 [30] 전계서. pp44  
 [31] 송중호. '청년창업 성공확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청년창업 사관학교 운영사례 중심으로-호서대학교논문. pp35~pp36 2011  
 [32] 이요행. '대학생 창업활동 및 창업지원제도 현황분석'.고용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pp211. 2013.  
 [33] 전계서. pp211~pp212  
 [34] 전계서. pp214  
 [35] 전계서. pp215  
 [36] 전계서. pp217~pp218  
 [37] 전계서. pp238~pp239  
 [38] 전계서. pp245~pp246  
 [39] 전계서. pp250~pp251  
 [40] 전계서. pp251  
 [41] 전계서. pp257~pp258  
 [42] 전계서. pp259~pp260  
 [43] 전계서. pp261  
 [44] 전계서. pp270~pp271  
 [45] 금융감독원. 기업금융나들목  
 (<http://www.smefn.or.kr/index.do>)